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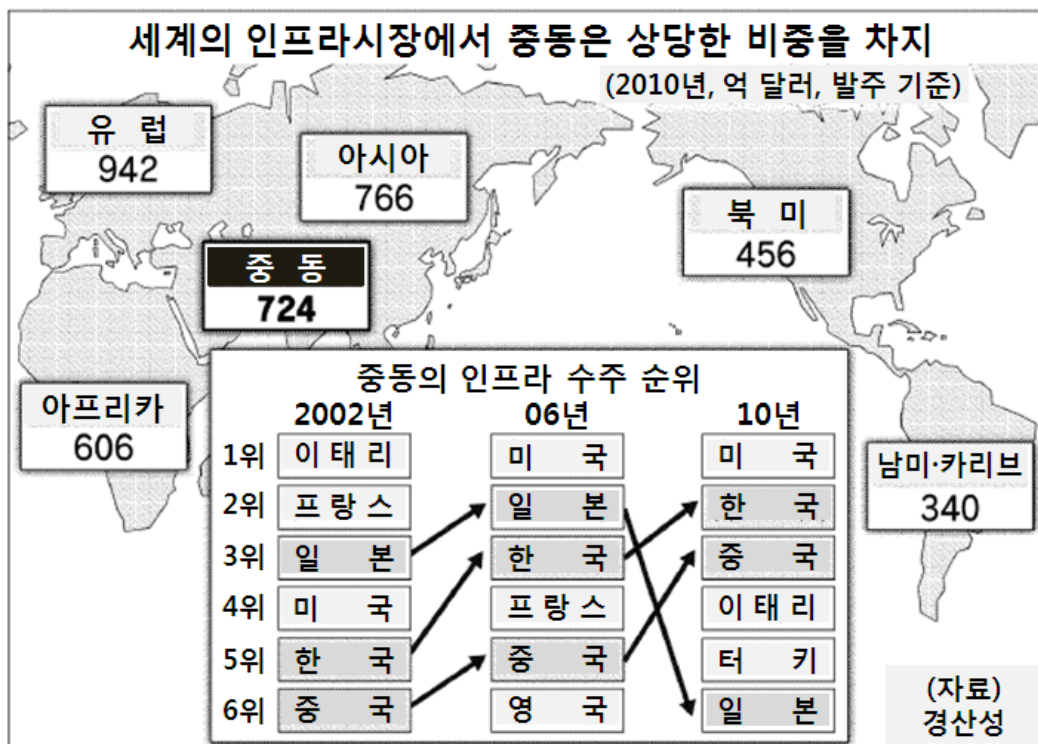
일본, 터키와 협력해 중동 인프라건설 수주 확대 도모

해외 인프라건설 수주에 둘러싸고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정부는 터키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의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모하고 있음. 일본정부는 인프라수출 확대를 위해 금년 말까지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

- 일본은 터키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의 인프라건설 수주 확대를 도모(닛케이, 2012.4.16)
 - 양국은 각료급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르면 5월에 기본협력에 합의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및 기술 제공과 정부간 협력의 틀을 정함으로써 양국 기업이 협력하기 쉬운 체제를 구축
 - 우선적으로 이라크의 전력시설·도로·병원 등의 건설사업(인프라건설 건당 1,000억~2,000억 엔 규모 예상)을 수주하기 위해 7월 상순에 양국 기업(일본의 건설사, 상사, 중공업 등과 터키의 건설사)이 참가하는 비즈니스회의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할 예정
- 전세계 인프라 수요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는 4,000억 달러 전후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매년 900억 달러 정도 증가해 2010년 1조 730억 달러를 기록(이 중 해외 수주는 3,800억 달러를 상회)
 - 2010년 지역별 해외 인프라 수요(총액 3,835억 달러): 유럽 942억, 아시아 766억, 중동 724억, 아프리카 606억, 북미 456억, 남미·카리브 340억; 2010년 분야별 해외 인프라 수요(총액 3,835억 달러): 교통 1,090억, 석유 893억, 건설 830억, 발전 386억, 물 124억, 기타 512억

- 2005~10년간 한·중·일의 해외 인프라 수주: 일본은 정체된 반면 한국과 중국은 급증하는 추이
- 일본: '05년 256억 달러 → '10년 233억 달러; 한국: 158억 → 645억 (4.1배 증가); 중국: 296억 → 1,344억(4.5배 증가)
- 중동 지역 인프라 수주: 일본 '02년 3위 → '06년 2위 → '10년 6위; 한국 5위 → 3위 → 2위; 중국 6위 → 5위 → 3위

그림 1. 2010년 세계 인프라 시장 및 중동 인프라 수주 현황



자료: 日本經濟新聞(2012.4.16)

- 일본의 해외인프라 수주 정체는 경쟁국과의 임금격차 및 엔고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FTA체결 지연 등에 기인
- 한편,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인프라투자는 2030년까지 8,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일본정부는 2010년 6월 「신성장전략」 및 「산업구조비전2010」의 마련을 통해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을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로 설정
- 구체적으로 1) 공적금융(JBIC · JICA · NEXI) 등을 통한 지원 강화, 2) 계획수립 단계부터의 협력(인도 델리-뭄바이 산업대동맥 구상 등), 3) 지원의 패키지화(경제협력 · 금융지원 · 교육 · 기술협력 · 인재육성 등) · 정상외교 추진, 4)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5) 주요 11개 분야 결정** 등을 도모
- *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전개 관계장관회의'를 2010년 9월에 설치하고, 개별 중점 프로젝트의 지원, 중점분야의 전략수립, 횡단적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검토
- ** 물, 석탄화력발전 · 석탄가스화플랜트, 송배전, 원자력, 철도, 리사이클, 우주산업,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커뮤니티, 재생가능에너지, 정보통신, 도시개발 · 공업단지
- 지금까지 베트남(원전), 터키(인공위성), 인도네시아(석탄화력)의 인프라사업 수주에 성공
- 또한, 2012년 3월 현재 동서남아 · 중국 · 중동 · 아프리카 · 미주 · 러시아 등과 3.6조 엔 규모(38건)에 달하는 해외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닛케이, 2012.3.2)
- 일본정부는 자국기업의 인프라수출 확대를 위해 금년 말까지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찰과 함께 해외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

- 일본 경제산업성은 4월5일 인프라·시스템수출부회를 개최하고, 발전플랜트·석유관련플랜트 분야에서의 비용경쟁력 확보방안과 스마트커뮤니티·철도 분야(개발구상단계)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검토
 - 구체적으로는 비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지 생산을 통한 인프라 수주에 대해 무역보험을 적용하고, 해외 도시개발에 JICA가 출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
- 또한, 일본정부는 6월까지 자국기업의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력강화 방안과 하반기에 11개 전략분야별 대응방향을 각각 논의하는 일정을 추진 중
- 우리 정부는 정상외교, 정부간 협의, 공적금융 지원 등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지원할 필요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2.3.2, 4.16)

經濟産業省(2012.4.5)